

조성산, “18세기 후반~19세기 전반 대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 관념의 형성,” 『한국사연구』 145, 2009.

새로운 중화 관념 하에서 대명의리와 대청인식의 변화를 검토

검토대상 인물: 박지원, 홍길주, 홍한주, 서유분, 홍희준, 성대중, 남공철 등

- 대부분 박지원의 <연암집>을 접하고 영향 받음

조선후기 대청인식의 흐름: 북벌론 -> 존주론 -> 북학론

- 청의 국정운영 안정화에 의해 영향

華夷之辨과 君臣之義라는 두가지 윤리체계에서 후자가 우위를 차지

- 청황실의 녹을 먹으니 당연히 청조에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

중화 관념의 변화

- 홍대용의 華夷一也, 중화의 다양성, 복수의 중화 인정, 중화와 이적의 상호 변환

- 성대중의 人同而時異, 사람은 같지만 시의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진다는 것

- 所當然이 아니라 所以然으로서의 禮義

- 중화를 人道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성 차원에서 이해

청대를 小康으로 간주

- 청대의 국력과 영토의 확장, 번영을 높이 평가

청을 중화문화의 현실적 수호자로 인식

- 서양세력의 침투에 따른 위기 의식

박규수 등 조선후기 많은 유학자들에게 대명의리와 사대친청의 공존

- 중화가 인류보편성 차원에서 사유되고 있다는 반증

서양과 서학에 대한 태도는 19세기 이후 오히려 18세기보다 보수화

** 발제자 주: 우리들이 이미 익숙한 내용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분석이 없어서 자세히 발제 안하고 간단히 메모